

제주대신문

외국인 학생 위한 식단 영문표기 있어야

학내 식당의 식단표에 영문 표기가 없어 외국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학생회관 백두관식당과 학생생활관 식당 식단표에는 영문표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해 힌두교·이슬람교 신자인 외국인 학생들이 육류를 피악하기 위해선 일일이 식당 직원을 찾아가거나 친구들에게 물어 봐야한다. 이슬람교 신자인 시디키 가야 수딘(메카트로닉스공학과 3)씨는 “음식을 먹을 때 마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며 “전에는 백두관식당을 자주 이용했지만 현재는 이용이 번거로워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 표기만으론 요리에 들어간 육류 파악 어려워

식당 관계자 향후 유학생 위한 대책 마련 약속

백두관식당 식단에는 ‘쇠고기미역국’, ‘닭고구마조림’ 등 애초부터 음식명칭에 육류가 포함된 음식이 종종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표기만으로는 요리에 사용된 육류를 파악하기 어렵다.

경희대와 연세대 등 타 대학의 경우 음식에 사용된 육류를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다.

경희대 학생식당은 모든 메뉴판에 소고기는 ‘Beef’, 돼지고기는 ‘Pork’로 표기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엔 제공되는 음식의 주 재료를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다.

타 대학에서는 특정 육류를 먹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채식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 학생식당에선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 식단을 제공되며 서강대의 학생

식당도 정기적으로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황우하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처음 메뉴판을 만들 때 외국인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생각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부회의를 통해 영문표기를 넣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좌장범 학생생활관 행정실장은 “영문표기를 위해서는 표기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인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자치위원회와 함께 영문표기 동아리를 만들어 행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윤 기자

정문 ‘연석’ 차량 접촉사고 위험

차량 많은 시간대 위험도 높아

시설과 ‘민원 많아 10월 중 공사’

제주대 정문 앞에 설치된 연석으로 인해 진입하는 차량들의 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제주대 입구 방향에서 정문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2차선 우측에 위치한 연석을 피하기 위해 1차선에 가까이 붙게 된다. 이때 점단과학단지 방향에서 들어서는 차량 또한 1차선을 통해 진입을 하면 접촉사고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출근시간과 같이 정문으로 차량 유입이 많은 시간대에 사고 위험도가 높다.

현재 연석은 아무런 용도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로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다. 올해 2월에는 화단을 넘고 들어오는 차량이 돌라프랑과 충돌하는 사고가 잦아 돌하르방을 박물관 앞으로 옮기기도 했다.

박주영(인문홍보학과 3)씨는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곳이라 차량 속도를 줄이지만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찔했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문 통과시 2차선 오른쪽에 있는 연석이 차량운행을 방해해 1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할 확률이 높다.

양영우 시설과 기획팀장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연석에 대해 직원들과 대학 방문객들의 민원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불만사항을 듣고 올해 10월 중으로 튀어나온 연석을 깎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문의 경우 시내버스 세우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징서가 확립되지 않았다”며 “정문을 정돈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강서윤 기자



22일 개장한 체육관 휘트니스센터에서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휘트니스센터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10% 할인된 회비를 받고 있다.

강경태 기자

탐라문화연구원, 인문도시사업에 선정

‘돌하르방, 올레로 마실 나гада’ 과제에 3년간 2억8800만원 지원 확정

인문강좌·인문축제·인문주간 등 운영 통해 ‘제주형 인문도시’ 구축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동운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2014인문도시지원사업’에 최종선정돼 3년 동안 2억8880만원을 지원받는다.

‘돌하르방, 올레로 마실 나гада’라는 주제로 선정된 이번 과제는 제주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학 기반의 지역경제성확립, 사회통합,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을 통해 ‘제주형 인문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탐라문화연구원은 이번의 과제 선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인문강좌, 인문체험 및 축제, 인문주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의 대중적 확산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제주시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인문도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인문대학·박물관·인문과학연구소·재일제주인센터 등의 학내기관과 제주전통문화연구소·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의 민간단체가 참여기관으로 함께 하며, 제주시가 참여자치단체로 협력하게 된다. 1차년도 8800만원, 2차년도 1억, 3차년

도 1억 등 총 2억8880만원의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이 투입된다.

한편 9월 18일 한국연구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의 인문도시지원사업에는 전국에서 17개 사업이 선정돼 각각 8400만원에서 2억888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문의=탐라문화연구원 ☎754-2310 정용복 팀장

아라대동제 24·25일 일정

24일 수요일=과대과·응고집전(오후 4시~오후 6시 30분), 교직원 공연·동아리 공연(오후 6시 30분~오후 7시) 연예인 축하공연(오후 7시~오후 9시 30분)

25일 목요일=청춘을 노래하다(오후 4시 30분~오후 7시 30분), 폐막식(오후 7시 30분~오후 8시 30분), 연예인 축하공연(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취업박람회 ‘Job-Ara Festival’ 개최

10월 2일... 50개 기업 참가

취업컨설팅·취업특강 등 열려

취업박람회인 ‘Job-Ara Festival’이 10월 2일 우리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블랙야크, 넥슨, 이니스프리, 농협 등 50개 기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개 유관기관이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기업이 현장부스에 참여해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채용관이 설치된다. 또 구직자들에게 검증된 취업정보와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20개의 부스들도 운영된다.

우리대학 출신 CEO 및 유명인사의 취업특강과 기업과 구직자가 소통할 수 있는 채용설명회도 열린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과 구직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우수기업을 탐방할 기회를 갖는다.

행사 막바지에는 구직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채용하는 ‘자기소개 콘테스트’가 열린다. 이 프로

그램은 오디션처럼 다수의 기업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기업에 알맞은 인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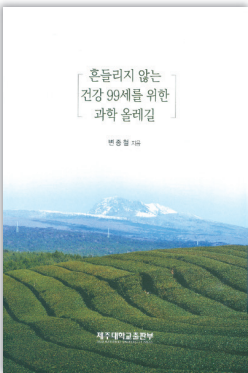
한편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 통신공학과 교수)는 60명 이상의 취업성과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백승규 기자

해군 남·여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학생군사 교육단(단장 박하서 중령)이 2015년도 신입 남·여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한다.

모집은 오는 26일까지 원서접수가 이뤄지며, 이후 서류심사와 1차 시험(필기시험)이 진행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10월 31일 발표 후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과 인성검사,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12월 17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지원자격은 15년도 2학년 진학 예정자,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군 인사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적이 평점 2.4점 이상인 자이다. 강경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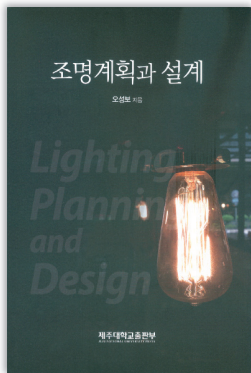


흔들리지 않는 건강 99세를 위한 과학 올레길

| 변종철 지음 | 313페이지 | 18,000원 |

한 줄의 시는 과학의 숨결이며, 한 포기의 양배추는 과학의 흔적이며, 한 마리의 한지는 과학의 산물이며, 파도를 잉태하고 있는 바다는 과학의 보물단지이다.

『흔들리지 않는 건강 99세를 위한 과학 올레길』, 일상생활에서 시 한 줄을 읽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양배추와 당근, 한 잔의 막걸리를 음미하면서 한지와 광어, 다양한 색깔에 취하면서 바다와 하늘을 품는 것이 건강한 99세를 누릴 수 있는 절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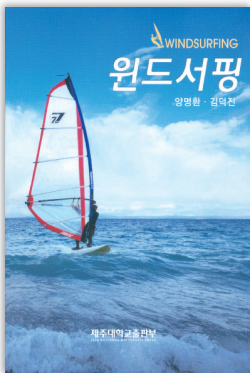


조명계획과 설계

| 오성보 지음 | 243페이지 | 18,000원 |

빛은 공기나 물과 같이 생명체에 꼭 필요한 물리적 환경요소이다. 이러한 빛이 과다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해가 되는 물은 동식물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조명계획과 설계』는 조명이론을 중심으로 생태조명 계획에 대한 제주도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했고,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건축공학, 산업 디자인 및 관광개발·경영 관련 학습자들의 기본 교과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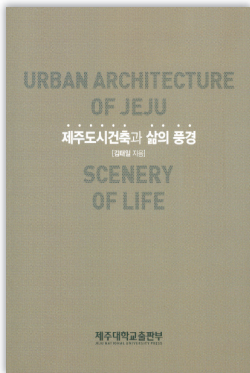


윈드서핑

| 양명환·김덕진 지음 | 219페이지 | 13,000원 |

햇빛에 반짝이는 세일을 달고 나비처럼 산들산을 움직이다가도 바람을 만나면 하얀 꼬리와 포말을 일으키며 물 찬 제비처럼 빠르게 물위를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환상적인 스케이트 선수의 동작과도 흡사하다. 바람의 힘으로 속도감에 도전하는 스포츠, 바로 윈드서핑이다.

『윈드서핑』은 윈드서핑의 기초이론과 기술을 터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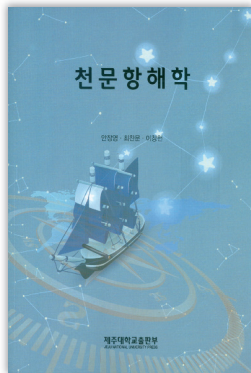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

| 김태일 지음 | 243페이지 | 18,000원 |

생태도시, 안전도시, 녹색도시, 도시재생,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역 곳곳에는 넓은 도로가 건설되고 도서관과 미술관, 아트센터가 개관되고 수많은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을 통해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를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해 도시건축의 질을 높여야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 물리적 환경과 삶이 녹아 스며든 아름다운 풍경이 형성된다는 취지이다.



천문항해학

| 안장영·최찬문·이창현 지음 | 338페이지 | 15,000원 |

현재 선박에서 위치를 측정할 때 연안항해와 대양항해에 관계없이 레이더와 GPS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문항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천문항해학』은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필요한 요소를 계산함으로써 표를 이용하여 구하는 지금까지의 방법보다 더욱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 있을뿐더러 위치 산출에 필요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이용되는 내용만을 발췌하여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사 설

신임 교수회장에게 바란다

올해 초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역동의 시기에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인물을 다룬 역사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일이 있다. 오랜만에 사극다운 사극이 나왔다고 칭찬일색이었던 만큼 하반기에 방영되고 있는 역사드라마들의 시청률은 정도전에 비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역사드라마가 ‘정도전’이 표방했던 충실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과 다양하고 선 굵은 캐릭터를 덕분이었지만, 이러한 요소보다 더 공감되었던 것은 드라마의 타이틀이었던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백성이다’라는 정도전의 철학이었다.

흔히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의 나라’라고 한다. 조선시대 내내 이러한 기조를 이었던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의정부(議政府)였다. 조선시대 백관(百官)의 통솔과 서정(庶政)을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는 고려말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계승한 제도이다. 하지만 왕권의 강화와 함께 육조직제(六曹直啓制)가 시행됨으로써 그 기능이 약화되던 중에도 왕권의 견제를 통한 성리학적 통치이념의 실현이라는 역할을 추구해왔다. 그래서 조선은 왕과 사대부가 견제와 협조를 통해 주인인 백성을 위한 정치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9월 30일에 치러질 제7대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1971년 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3대회장을 배출하였

다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해체되었고,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제4대에서 제10대까지 교수협의회장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2002년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가 통합에 합의한 이래로, 2014년 현재까지 제6대 교수회장이 취임하였다. 이런 연혁으로 보건대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조선시대 의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대학 본부와는 명실상부한 견제와 협조를 통해 대학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것을 그 역할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에는 통합에 따른 교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반발이 제기된 일도 있지만, 국립대학 법인화와 총장직선제 폐지, 그리고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등의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이제 곧 제주대학교 교수회를 이끌 제7대 교수회장이 선출되고, 취임할 것이다. 우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에 선출될 교수회장이 학내 유일의 직선제 선출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수회장은 학내구성원을 대표한다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는 동시에 학내구성원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교육내외 환경의 급변에 따른 생존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대학분부는 때때로 대학구성원의 목소리보다 정책적 판단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대학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여 대학분부를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평의회 의장을 겸직하는 제주대학교 교수회장의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대동(大同)의 의미를 되새기자

우리 대학은 초급대학 시절부터 개교기념일을 전후하여 행사를 가졌다. 1953년에는 개교기념 연극이 성황리에 열렸다. 1964년에는 행사 명칭도 ‘대학축전’으로 정했으나, 대학 축제의 개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1965년 5월 25일부터 5일간 열린 대학축전부터는 ‘용연제’로 개칭했다. 1981년에 들어와 학도호국단에서는 개교 29주년 종합축전을 캠퍼스 이전기념과 병행하여 성대하게 열고자 종전 ‘용연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새 명칭을 공모했다. 캠퍼스가 웅담동에서 아라동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용연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모 결과 ‘아라축전’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게 됐다. 지금의 ‘대동제(大同祭)’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축제부터였으나 예나 지금이나 대학 축제의 본질과 그 형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의 대학 축제는 소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전체 대학인으로서의 대동단결을 통해 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계승하는 것을 주된 의의로 삼고 있다. 그래서 축제의 이름도 ‘대동제’란 명칭을 쓰고 있다. 사람에겐 남녀노소의 차이뿐 만 아니라 능력의 차이, 외모의 차이 등 차별성이 무수하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은 그 차별성을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되 더불어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동이라는 이름이 표현하는 내용들을 오늘날의 축제 행사들이 담아내는가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과거 젊은이들의 이념과 대학 문화 표출의 장이었던 축제가 이제는 파편화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부추기는 대중문화 일색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연예인의 공연이 축제의 꽃이 되었고, 오락 중심의 축제로 변하게 됐다. 대학 축제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축제 기간 중 행해지는 상행위에 관한 것이다. 각 학과 학생회, 동아리, 또 다른 연합체의 이름으로 주점을 열거나 개인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이들 행사가 축제행사 중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물론 주점의 경우 학생회나 단체의 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의의가 없지는 않았으나 과도한 가격으로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먹고 마시고 없애는 소비적인 것보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대학정신을 남겨주는 축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축제가 모두의 것으로 공유되고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보다 치열하고 진지한 의식과 성의 있는 작업이 요구된다. 대학이라면 최소한의 아카데미즘과 스스로 참여의 주체가 되는 대중제의 성격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젊은 지성의 창의적 에너지와 열정이 빛아내는 새로운 제주대학만의 대학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제주대 꿀팁’ 앱, 학생들 큰 호응

도서관 배정현향·순환버스 도착 안내 등 기능

김용대(컴퓨터공학 4)씨 “불편함 해소하려 만들어”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개발한 앱이 학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용대(컴퓨터공학 4)씨가 개발한 ‘제주대 꿀팁’ 앱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졌다. 김씨는 9월 14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배포를 시작했다. 아이폰용 앱은 차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대 꿀팁’은 총 여섯가지의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김씨는 순환버스가 각 정류장까지 도착하기전 남은 시간을 추가했다. 도서관 기능에는 좌석배치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좌석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 직통전화 검색기능을 넣어 학생들이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앙도서관 귀가버스 노선과 시간, 학교의 현재 날씨, 백두관 식당과 학생생활관 식당의 식단이 그날의 메뉴만 보이도록 설정했다.

기존에 있는 제주대학교 공식 앱은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최적화가 완벽하게 이뤄지지않아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학생들은 특히 도서관마다 좌석배정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느꼈다는 의견이다.

김해건 기자

교육대학·윈더풀소프트·HB네트워크 업무협약

교사용 스마트앱 SW연구

모바일 앱 교육 확대 등 협력

교육대학(부총장 김익상)은 9월 17일 ICT(정보통신기술) 및 SW(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할 정보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주)윈더풀소프트(대표 오현주), (주)HB네트워크(대표 오민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익상 부총장과 윈더풀소프트 이금호 상무, HB네트워크 오민혁 대표가 함께 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초등 스마트앱 SW전문인재 양성 △교사용 스마트앱 SW연구 △ICT 교육 활성화와 △모바일 앱 교육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초·중·고 교사, 과학영재교육원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제작 프로그램의



지난 17일 교육대학과 (주)윈더풀소프트, (주)HB네트워크는 업무협약을 맺어 초등 스마트 앱 SW전문인재 양성, 교사용 스마트 앱 SW연구, ICT교육 활성화와 모바일 앱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또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 교육과 창의력 교육의 증진을 도모한다.

교사용 스마트 앱 SW연구와 학습용 모바일 앱의 연구원은 제주대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센터장 박남제) 초등컴퓨터교육전공)와 상호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ICT교육 활성화와 제주대에서 제작한 모바일 앱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앱스토어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찬우 기자

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

16일 요양원 방문 봉사활동 전개

평생교육원(원장 임화순) 관광개발학과(교수) 여성대학 여성지도자과정 제16기 원생 35명이 16일 뉴-삼성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원생들은 노인복지센터 내 청소와 환자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목욕과 식사를 도왔다. 또 50만원 상당의 생

필품도 전달했다. 부흥진 평생교육원 행정팀장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것 자체가 원생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원생들이 강의실에서 벗어나 봉사의 정신을 배양하고 여성가치관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 한편 여성지도자과정은 제주시에 서 1998년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하나로 매년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지민 기자

제12회 제주대학교 영상제

김해도담군 ‘연애담’ 대상

신문방송사 교육방송(편성국장 조승재 통신공학과 3)이 주최한 제12회 제주대학교 영상제가 18일 오후 5시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가운데 김해도담(경기예술고 2)군의 출품작 ‘연애담’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영상제는 ‘청춘’을 주제로 한 10분 이내의 자유 영상물 공모전이 진행됐다.

이번 영상제에서는 6팀의 영상경연 본선 진출팀 중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1팀씩 시상했다. 특히 출품 수상자에게는 각각 70만원, 40만원, 20만원, 10만원의 상금과 총장상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연애담’-김해도담(경기예술고 2) 작 ▲최우수상 ‘꼭요일’-성지훈(인천계양고) 작 ▲우수상 ‘뽕’-변성빈(성균관대 영상학과 3) 작 ▲장려상 ‘AM 07:58’-문재웅(제주대 정치외교학과 3) 작

강경태 기자

건강증진센터 결핵검진

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문두)의 학과(교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결핵검진은 23일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생회관 앞(외국어교육원 맞은편) 이동검진차량에서 진행한다. 또 30일에는 사라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문의=건강증진센터 ☎754-2059, 교육대학 ☎754-4722) 유주연 기자

일본인턴십 연수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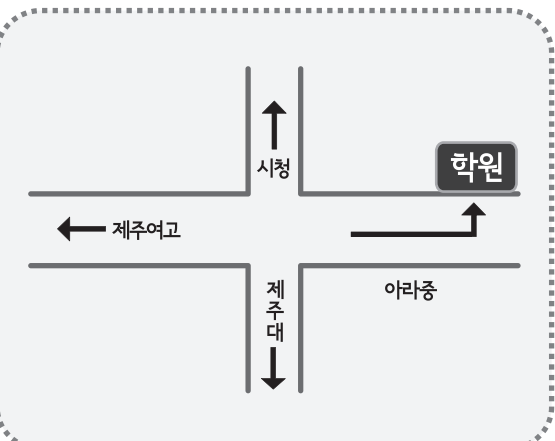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 통신공학과 교수)는 일본어 능력 향상과 일본 기업의 이해 및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인턴십 연수생을 모집한다.

재학생 2~4학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유급(기업체 인턴십 6주~12주) 22일부터 24일까지이며 무급(어학연수 8개월, 기업체 인턴십 3개월)은 22일부터 30일까지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취업전략본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백승규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형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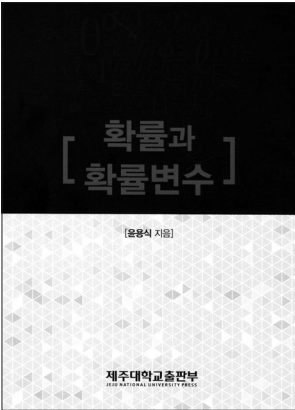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u.ac.kr로 제출해야 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3.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4.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5일(월) 18:00까지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6.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월 1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신 간 안 내



학률과 변수

윤용식 지음 | 제주대학교출판부 | 1만원

서문에서

“이 책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정의 중간정도에 맞추어 쓰려고 노력하였다. 고등학교에서 문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하였지만 생각보다 쉬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인문계나 자연계 학생들의 한 학기용으로 좋을 듯하다. 각 장의 연습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 교재가 보다 수준 있는 학률론을 공부하는데 좋은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건강증진센터 이용 안내

1. 의사 진료 및 투약
- 진료 시간 : 아라캠퍼스 - 화, 목(14:00 ~ 17:00)
2. 응급 의약품 지급 및 외상 치료
- 학교생활 중에 갑작스런 증상이 발생하거나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적절한 간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안정실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3. 건강증진실 운영
- 체성분 검사 : 근육량과 체지방률 지수 등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분석해 몸상태를 평가하는 검사 방법인 체성분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 발달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언제든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4. 구급함(약품) 지원
- 학생 및 교직원들의 공적인 행사시(M·T, 농촌봉사활동, 답사,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장기 출장 등)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급함과 남은 약품은 행사가 끝난 뒤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성희롱·성폭력 상담부 운영
-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성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며, 상담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6. 위치 및 문의처
아라캠퍼스 - 본관 대학원동 1층 ☎754-2059, 2060)
사라캠퍼스 - 학생회관 1층 ☎754-4722)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미납하고도 이용자 많아

이용료 미납자에게 일부 시설과 프로그램만 제한 대학 보건실 관련 법 조항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학내 건강증진센터 이용 규정이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센터 이용료 미납자에게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전 시설 이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운영방침 때문이다.

대학 본관 1층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문두 의학과 교수)는 학생들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간단한 치료와 약 처방 등을 받으려 이용하는 시설이다.

건강증진센터는 이용료 납부자와 미납자에게 부분 유료화 개념의 방식으로 차별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 납부자는 매 주2회의 전문의 검진과 처방이 가능하며 각종 시설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납자의 경우, 전문의 검진과 처방이 불가능하며 센터 주관의 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하다.

이용료 납부의 판별은 하영드리미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구분이 가능하다. 미납자가 전문의 검진 혹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 할 시에는 담당 직원이 확인 후 이용료 납부를 요구한다.

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는 한 학기당 3000원으로 연간 6000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이용료는 연간 약 4800만원 수준의 금액이 모인다. 이는 국고로 환수돼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다. 이용료를 포함한 국고와 연간 2000만원 수준의 기성회비로 전체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료 납부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강증진센터 규정 제10조 1항은 '센터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진료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몇몇 학생들은 이용료 미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은상(화학과 2)씨는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진을 받더라도 비용은



건강증진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학생이 접수처에 이름과 학과를 기입하고 있다.

청구된다"며 "건강증진센터 이용시에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학생들의 의료 복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학 보건실 관련 법 조항은 초·중·고교 보건실 규정은 달리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교육부에서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대학의 자율적 경영차원으로 인해 보건시설이 낙후되거나

센터의 예산 감축이 되더라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내 관계자는 "현재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이 기성회비와 국고 등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기성회비 반한 소송 등 점차 예산의 폭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며 "이용료 납부 금액이 센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복지 관련 예산은 뒤로 밀리기 쉽기 때문에 미납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그린캠퍼스 녹색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

실천 아이디어·UCC부문 진행

김승민·김기주·장지은씨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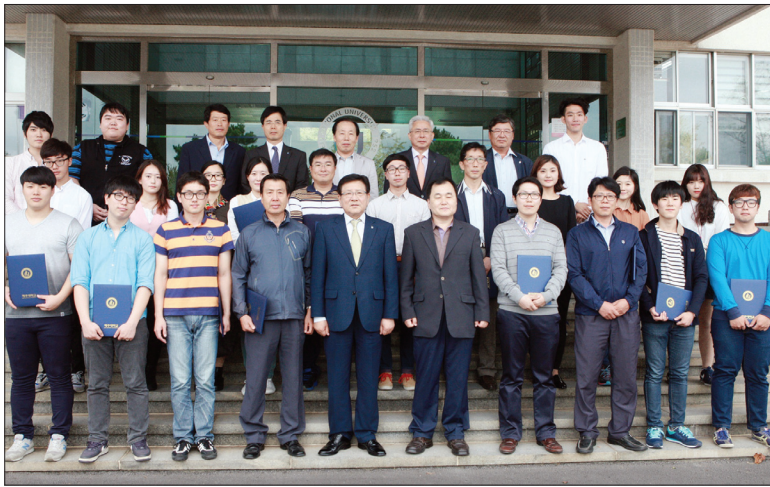
‘그린캠퍼스 녹색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식이 9월 22일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실천 아이디어 부문과 UCC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실천 아이디어 부문에선 ‘캠퍼스에서 자동차 줄이기’를 출품한 김승민(경제학과 1)씨와 ‘절전형 멀티콘센트 사용을 통한 대기전력 절감’을 모색한 김기주 시설과 실무관이 금상을 수상했다.

UCC 부문에선 ‘Up-cycle한 그녀의 대학생활’을 출품한 장지은(동물생명공학전공 2)씨가 금상을 받았다. 이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은상=전호광(수의학과 4), 이정훈(환경공학과 상하수도 석사과정),



지난 22일 ‘그린캠퍼스 녹색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식이 전전실에서 열렸다.

고마워(GTU사업단), 조진국(시설과 실무관) 외 1명, 김정태(환경공학과 환경화학 석사과정)의 4명 △동상=이규민(아동생활복지전공 4) 외 4명, 고연신(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2), 문지(환경공학과 3), 정상기, 이경봉(이상 시설과 팀장), 김성희(행정학과 조교), 고태웅(환경공학과 대기오염 석사과정)의 1명, 고동윤(경영학과 1)의 1명.

김해건 기자

제5회 IWPT 국제워크숍 성황리에 열려

13개국 72명 학자 53편 논문 발표

우수논문 제어계측공학지에 수록

제5회 IWPT(International Workshop on Process Tomography) 국제워크숍(조직위원장 김경연 전자공학과 교수)이 9월 16일부터 사흘간 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학회는 국제 산업공정 단층촬영 3대 학회인 IWPT, ISPT, WCIPT 중 하나로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지난 16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제5회 IWPT 국제워크숍이 개최됐다. IWPT는 국제 산업공정 단층 촬영 3대 학회 중 하나다.

산업공정 중에 대상에 파(波)를 흘려 보내 그 현상을 관찰하는 것 분야에 있어 최근 연구를 교환하고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에는 미국, 영국, 핀란드, 중국, 폴란드 등 13개국 72명의 학자들이 5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선별된 우수 논문은 “Flow Measurement and Instrumentation”(제어계측공학 학술지) 학술지에 수록될 예정이다.

김경연 교수는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학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학회에서 석유 정제 과정, 식품 발효공정을 단층촬영으로 관찰하는 연구 등 많은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됐다”며 “이 학술 분야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지민 기자

조릿대 길 걷기 축제 10월 3일 열려

제주조릿대 RIS사업단(단장 김세재 생물학과 교수)은 10월 3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에서 ‘제주조릿대 길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주조릿대 신산업 진흥 사업의 하나로 제주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홍보하며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세재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조릿대를 활용한 산업육성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제주도만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해 제주도의 고귀함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대행사로 제주조릿대 배 만들기, 숲속음악회, 제주조릿대 사진 전시전, 완주 스탬프 찍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제주조릿대를 활용해 만든 음료 시음회도 진행된다. 행사에는 도민 및 관광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김하운 기자

웰빙&힐링 승마교실

초·고·심화반 19일 개강

평생교육원 웰빙&힐링 승마교실 초급, 고급, 최고급 심화반(주임교수 강민수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이 9월 19일 개강했다.

이 과정은 15주 동안 말의 생리 및 습성 등 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승마의 역사, 효과 등의 이론교육, 말 끌기·평보·경속보·구보·방향전환 등의 실기교육을 통해 웰빙&힐링 승마교육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강수빈 기자

학생복지과, 상해보험 안내

‘학교경영자배상 책임 보험’

학생복지과(과장 조용준)는 9월 19일 상해보험(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공고했다.

보상 기준일은 2014년 6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3일까지로 이 보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를 완료한 후 소속 학과로 신청을 하면 치료비(상해의료비 300만원 한도)가 보상된다.

보상 기간은 사고발생 후 180일 이내 치료 내역까지며,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 기준 2년 이내다. 또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입원시), 영수증 일체,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강경태 기자

2015 호놀룰루 페스티벌

참가 공연(해녀)팀 모집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 행정학과 교수)는 내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2015 하와이 호놀룰루 페스티벌’에 참가할 해녀 공연팀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재학생으로서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1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10월 17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참가지원서는 제주 해녀 관련 소개를 포함한 공연소개서와 참가 계획서, 팀원 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10월 20일부터 이틀간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22일 서류심사 결과를 확정 발표한다. 면접은 24일 실시된다. 문의=국제교류본부 ☎754-8244

강수빈 기자

의원원 환경보건센터

아토피아동 검사·상담 시행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성철 의학과 교수)는 3월부터 9월까지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알레르기검사, 환경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등의 협조로 이뤄졌으며, 20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500여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아토피질환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 중증 아토피질환 아동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 등록하고, 보습제와 코세척기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센터는 향후 중증 아토피질환으로 등록된 아동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유주연 기자

잘못된 안내표지판 바로잡아야

시험장 위치 찾지 못해 당직실 재차 방문

학내 표지판이 부정확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해도 건물 위치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지적이다.

지난 5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불편의 소리’ 게시판에 부정확한 건물 위치 표지판에 대한 항의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 시험장을 찾지 못하고 당직실을 재차 방문해 물어보는 경우가 잦았다.

공과대학 4호관은 1·2·3호관과 달리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 공과대학과 인문대학 건물에 있는 예술디자인대학의 위치설명은 표시도 돼있지 않다.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건물 앞에는 표지판이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대학을 방문하려는 사람이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도 있었다. 수의대학과 자연과학대학 2호관의 표지판도 전혀 찾



경상대학 표지판에는 미술관과 골프아카데미가 동쪽 방향으로 표시돼 있다.

을 수 있다.

경상대학의 표지판에는 미술관, 골프아카데미 등 경상대학 남쪽에 위치한 건물 방향이 전혀 다른 동쪽으로 표기돼 있다. 또 교육지원시설 표지판에는 대운동장과 학근단을 같은 방향으로 표기했지만 학

근단은 공과대학 4호관 남쪽에 있다.

고유림(언론홍보학과 1)씨는 “수업을 듣기 위해 공과대학에 가려고 했으나 표지판을 따라 걸어도 해양과학대학근처만 돌뿐 공대건물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지판의 화살표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유영(사학과 1)씨는 “지난 3월 인문대학에서 박물관을 가기위해 음악관 근처 표지판에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갔더니 왔던 길을 다시 갔던 경우가 많았다”며 “학교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교내 표지판이 썩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표성철 총무과 실무관은 “여름 방학동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잦은 태풍 등 굵은 날씨 때문에 공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업체와 협의해 이번달 안으로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대안적 갈등해소 제주포럼’ 열려

제주사회와 공공갈등해소 프로세스 등 토론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호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법과정적인 시민참여형 갈등해결기법’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하혜영(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간 분쟁상태-제주도 소송사례를 중심으로’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 끝으로 강주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공갈등 해결의 공법적 쟁점-행정법적 수단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는 전종원(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소송을 통한 갈등과 분쟁의 종식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다

음으로 최희동(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의 ‘환경분쟁과 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에는 김성훈(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변호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가한 홍성만(안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 지역의 갈등해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현 기자

여자육상부 전국대학 육상경기대회 13연패

금 3·은 2·동 4개로 정상

이창준 교수는 지도자상 수상

여자육상부(지도교수 이창준 체육학부 교수)가 경상북도 예천군설 운동장에서 열린 제68회 전국대학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여자대학부 종합우승 13연패를 달성했다.

한국대학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학은 금 3, 은 2, 동 4개로 2위인 한국체육대와 3위 충남대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또 이창준(체육학부) 교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 금메달 : 1600m 릴레이 - 김수미(체육학부 1), 이진아(체육학부 3), 남조림(체육학부 3), 최나람(체육학부 1), 포한던지기 - 이수정(체육학부 4), 3000m 장애물 - 김경원(체육학부 3)

▲ 은메달 : 1만m - 임윤희(체육학부 2), 세단뛰기 - 이희연(체육학부 3)

▲ 동메달 : 5000m - 임윤희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 예천에서 제68회 전국대학대항 육상경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우리대학 육상부가 여자대학생부 종합우승 13연패를 달성했다.

(체육학부 2), 800m - 남조림(체육학부 3), 원반던지기 - 류미진

(체육학부 2)

정현 기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예정… 교육이수증 발급

심폐소생술 교육이 학생과 교직원에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10월 6일 2시부터 3시간동안 탐라교육관 인성에 절관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이론 강의와 마네킹을 이용한 실습, 질문과 토의로 이뤄진다. 교육을 이수하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접수는 건강증진센터에 전화 후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www.kacpr.org)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건강증진센터 ☎754-2059, 2060

유주연 기자

사들

김호찬(전기공학과) 교수

고영상(의학과) 교수

윤소영·이흥림(관광경영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공동실험실습관장 임명

교육부 장관상 수상

김호찬(전기공학과) 교수가 8월 17일 ‘제15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산학연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해 같은 동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부전공은 제어이론, 칼만필터, 동력발전 제어 등이다.

김해건 기자

고영상(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공동실험실습관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신임 고 관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이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임용돼 미생물교실·기초의학분야 주임교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실장·교무부원장을 역임했다.

정현 기자

윤소영, 이흥림(제주대 관광경영학과 3)씨가 9월 22일 2014 대학생 모바일 앱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윤씨 팀은 과정 지향적 학습에 적합하고 수업과의 연계성 및 의사소통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Classwiki’ 앱 아이디어를 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우리 대학은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중앙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백승규 기자

제주형 스토리텔링·문화원형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

대학특성화(CK)사업단 <1>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대학교구조개혁에 따른 대학특성화(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에 우리대학은 4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5년간 180억(원 36억원)을 지원받으며 지방대학 특성과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각 사업단의 목표와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은 김동전(사학과 교수) 사업단장을 필두로 2개 학과(사학과, 국어국문학과)의 12명 교수(사학과 6명, 국어국문학과 6명)와 335명의 참여 학생(사학과 163명, 국어국문학과 17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약 5년간의 사업기간을 통해 제주형 스토리텔링 전문 인력 양성체와 제주문화원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트랙 개발·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 특성화 추진 배경

사업단이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주제는 '제주문화'이다. 사업단은 한국문화의 주변부로 여겨지며 배제·소외됐던 제주문화의 과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에 한국문화의 부분이자 독자적 면모를 지닌 제주문화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제주도는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중세화, 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문화의 고향이자 동아시아 문화허브(Culture-Hub)이다. 이는 사업단이 제주 문화에 주목한 이유이다.

사업단은 제주문화를 시발점으로 하는 한류문화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제주는 1만 8000의 방대한 신(神) 문화가 존재해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등 방대한 자료를 자랑한다. 신화를 문화원형으로 한 콘텐츠를 생산·기초화 하며, 신화 속의 음악, 미술, 문학,

춤, 연극이 공존함에 따라 예술장르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돌문화공원이 조성하는 설문대할망 전시관 사업에 참여해 콘텐츠의 관광상품화와 세계화를 꾀한다. 이밖에도 역사자원의 문화콘텐츠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올레 문화'의 정서를 담은 콘텐츠 개발 등을 준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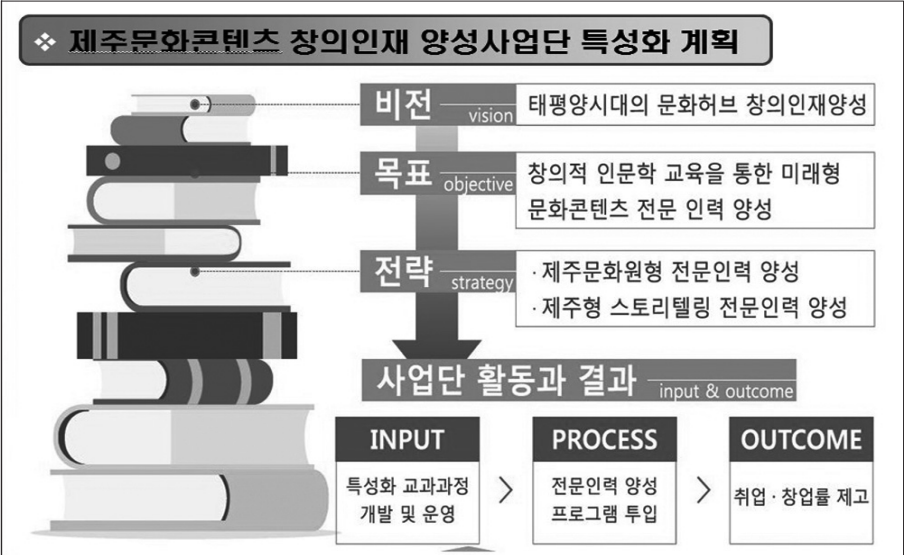
◇사업단의 교육비전·목표

사업단은 제주문화를 한국학의 원형으로 정의하고, 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 인문학교육을 통해 미래형 문화콘텐츠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미래형 제주문화콘텐츠 전문 인재의 양성은 제주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문화의 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사업단은 참여 학과의 교양과목 중 제주 문화 관련 교양교과목 재배치와 더불어 이를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양교과과정의 융복합 특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전공교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여 학과의 특화된 전공교과목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초공통과목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문화원형 전문 트랙과 제주문화콘텐츠 연계전공을 운영함으로써 특성화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지역산업구조의 특성 및 글로벌의 이념에 기초한 취업역량 강화 비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에 나서며 제주 문화콘텐츠 특성화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창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한 기여를 추진한다.

◇사업단의 우수성과 차별성

사업단이 추구하는 교육 정책 방향은 지역과 대학의 특수성에 기초하면서도 학문간 균형 발전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시스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의 5년간의 비전과 목표가 나타나 있다.

템중 대부분류 인문사회의 중분류 '언어·문학'의 한국어문학과 중분류 '인문학'에 해당하는 사학을 '한국학'으로 연계했다.

오늘날은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를 거쳐 문화지향사회(Culture-oriented Society)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에서 문화로 시대정신이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업단의 교육 목표와도 연관이 있다. 사업단이 추진중인 지방대학육성사업은 그 명칭인 'Creative 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문화콘텐츠 분야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어국문학과, 사학과와의 기존 학부교육과정을 제주문화 활용이 가능한 창의 인문학교육으로 재배치했다.

사업단은 이를 미래산업 분야인 문화콘텐츠사업분야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인 취업역량강화 비교과 과정과 연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종합적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통해 인문사회분야의 기초학문 분과가 취업과 창업 등의 교육성과지표에 취약하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전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사업단 관련 설명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업단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사업단의 과제

사업단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 참여 학생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사학과와 국어국문학과에 소속된 학생에 한하며 복수전공 대상자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공·교양교과목의 재배치를 통해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콘텐츠와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전문가 초빙 강연 등의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 진출을 돕는다. 이외에도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살린 (해녀, 돌담, 설문대할망 설화 등) 현장답사·실습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사업단의 운영은 학생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있다.

김태관(사학과 2)씨는 "교수님들이 강의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는 것 외에는 사업단에 관해 접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연구원은 "아직은 사업단이 시작단계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느끼기 힘들 것이다"며 "교육과정 개편, 실습 위주의 강의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양성 성과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인터뷰 김동전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사업단장

“상상과 창조의 열쇠를 쥔 인재 양성”

▶사업단장으로서의 각오. “경계를 넘어선 학문 융합을 통해 상상과 창조의 열쇠를 쥔 사람, 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싶다. 플프 엔센은 꿈과 감성을 파는 꿈의 사회가 미래사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상상력의 시대는 꿈꾸는 사람들의 세상이다. 끼가 있는 글로벌 이야기꾼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의 바탕과 본질은 창작의 핵심요소인 아이디어, 이야기, 문화원형은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인문학을 그 원천으로 한다.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원형 창작소재 발굴과 문제 해결 능력,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성 능력은 우리 사업단 참여 학생들의 장점이다.” ▶사업단 소개를 하면.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사업단”은 제주의 풍부한 문화원형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맞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성화 트랙 등을 개발하여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제주문화 분야의 창의인재의 취업 및 창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단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으로 선정된 배경은. “세기는 이미 정보화 사회인 제3의 물결에서 문화·창조·상상력의 시대인 제4의 물결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경쟁력의 핵심원천이 문화와 창조성으로 바뀌고 있다.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세계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63.6%이지만 G7 선진국들은 훨씬 높은 수치인 74.8%를 기록했다. 또한 영국은 일찍이 제3의 길을 위한 대안으로 창조산업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경제부흥과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를 기치로 창조경제론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각종 받는 문화콘텐츠 분야 중에서도 제주문화만의 차별화되며 풍부한 문화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그에 따

른 문화원형의 개발, 창의인재의 양성을 위해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타 사업단과 비교한 문화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사업단의 장점은. “정보화 사회인 제3의 물결에서 문화와 창조, 상상력의 시대인 제4의 물결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는 경쟁력의 핵심원천이 문화와 창조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라는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데, 문화콘텐츠는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융합, 신규 시장 창출, 시공을 초월한 활용성이라는 부문에 있어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한 창의인재를 양성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단과 차별화되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인재상은. “인문학이 없었다면 나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다’는 빌게이츠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밥 먹여 주느냐는 비아냥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다. 문화콘텐츠는 실용인문학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자연 파괴, 인간성 상실 등을 극복하고 자연존중의 가치관으로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문화콘텐츠 창의 인재 양성이 되는 것이 목표다.” 강수빈 기자



공감과 신뢰는 모든 대화의 출발점

대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법

정 은 승 / KBS 아나운서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상대방과의 ‘공감’과 ‘신뢰’다. 남들과 소통하는 것만큼 나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화는 상대방의 처지 이해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버스 안에서 맘에 드는 여학생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남학생이 있다. 어떤 말을 하는 게 대답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할까. 1번 ‘저 지금 내려요’, 2번 ‘아름답습니다’, 3번 ‘어디까지 가세요’, 4번 ‘이 버스 어디까지 가나요’.

정답은 4번이다. 앞선 세 가지는 지극히 ‘나 중심’의 폐쇄형 질문이다. 반면 마지막 4번은 편안하게 답이 돌아올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고민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주로운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다.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 교섭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도 감정이나 태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감화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감을 유도하는 말하기는 상대방의 처지나 관심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세가 결국엔 대화에서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2000년 남북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무릎을 꿇어 몸을 낮추고 이산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이금희 아나운서는 브라운관에서 ‘감성’과 ‘투근함’으로 상징된다.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 프란체스코 교황은 누구보다 ‘공감하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한국방문에서 “다른 이와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모



“성공과 실패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먹을지를

명령하는 내 속의 명령자가

바로 자아존중감이다”

든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공감하고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없다면 진정한 대화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랑 받는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교황은 나처럼 작은 차를 타고, 나처럼 단출한 음식을 먹는 데다 내가 느낀 것처럼 교황도 느낄 것이라는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삶의 중요한 요소 자아존중감

자신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핵심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글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곧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흔히 말하길 성공과 실패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먹을지를 명령하는 내 속의 명령자가 바로 자아존중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자

기가지’와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신감’이 자존감의 두 축을 이룬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학습능력, 위기극복능력, 과제수행력, 직업성취도, 리더십, 대인관계능력을 스스로 발휘한다. 또한 자기심신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이랑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작은 일의 반복적인 성취, 다른 사람이 평가를 이뤄내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대리경험, 스스로에 대해 인색하게 평가하지 않기 등 부정적인 감정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상대방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허가 칼보다 날카롭다는 ‘설망어검(舌芒於劍)’이라는 사자성어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다.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폭언과 욕이 넘쳐난다. 언어폭력은 기절해야 세 치 혀가 무기지만 그 위력은 대단하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 돌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칼에 못지않다.

아니 어쩌면 칼보다 더 위험하다. 때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아픈 뿐만 아니라 상처도 더 깊고 후유증도 더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사회는 삶과 말이 일치하는 진실한 언어를 강조하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며,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따뜻한 말 문화를 가꾸어 왔다.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는 것은 우아하거나 착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하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관계는 신뢰에서 시작한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건강히 바라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 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정용복 팀장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진짜 성공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

김 진 향 / 바이탈 커뮤니케이터

물 위에 드러난 백조의 모습은 우아하지만, 물 속에 있는 백조는 움직일 때 다리를 바쁘게 움직인다. 그래서 ‘백조의 발’은 우아함 뒤에 숨은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킬 때 쓰인다.

◇다양한 인생경험이 곧 자산

아직 서론도 넘기지 않은 내가 구두 디자이너라고 소개하고, 신사동에 숨어 있다고 말하면 “부도 잘 만나서 어린 나이에 폼나는 일하며, 그림 그리고 여행 다니는, 별고민 없는 여자에겠지”란 반응이 오기도 한다. 하지만 내게 풍족한 자원이 있다면, 그건 내가 겪은 수많은 경험들뿐이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0여 년 이상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 내가 수능 시험을 마친 후 돌아가셨다. 엄마는 나와 내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 노점에서 분식을 팔았다. 난 학창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다단계의 유혹에 빠진 적도 있고 2000만원이 넘는 사채를 써서 두려움과 눈물의 나날을 보낸 적도 있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3개월 만에 대학도 자퇴했고, 지하창고 방에서 수많은 날들을 보내야 했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낮에 모델 일 하며 동대문시장에서 매장 관리도 했다. 광고 회사에 다니다, 토지개발 쪽 총무 비서 일도 했다. 회사생활도 좋았으나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하고 싶었던 꿈이 생겼다. 외부활동을 좋아하는데, 회사를 다니면 시간이 안 나니 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이 안정되고 좋지만, 이런 생활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

직업이 계속 바뀌다 보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다. 우리나라에는 직업과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침 브랜딩 전문가 한아타 작가가 ‘바이탈 커뮤니케이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다. 꿈꾸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가 어땠겠느냐고 제언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강연, 노래, 봉사활동 등이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행위니까, 활력(vital)으로 소통하는 사람(communicator)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직업과 일들을 경험하고 부딪혔다. 경험이 빠가 되고 삶이 됐다. 삶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이 곧 소중한 자산이다.

과연 나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보며, 현실에 지친 청춘들에게 역경은 헤쳐 나가라고 있는 것이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당신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는 돌이다. 돌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세공작업을 거쳐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아파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아파도

정용복 팀장

제7대 교수회장 임후보자 소견서... 선거 30일 실시

◇ 기호 1번 김철수 전산통계학과 교수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적극적인 소통 약속”

2학기 개강과 더불어 분주한 시기에 교수님들께 연구실 방문 및 전화 등으로 조금은 불편을 끼쳐드려야 하는 교수회장선거에 임후보한 전산통계학과의 김철수 교수입니다. 교수님들의 시간활용을 방해할 수 있어 넓은 아량으로 저의 소견을 전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수회장은 교수회를 통해 교수의 권익과 복지 그리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견제와 협력 그리고 소통에 모든 활동의 주안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투나 보직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학내에서 교수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집단은 교수들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수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간 대학에 재직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주로 맡아 해왔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던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연간책임시수제 도입’, ‘개방형교과목 도입’, ‘수업도우미’의 전신인 아라도우미 기획 개발 지휘, 1호 대학권역이러닝센터의 유지, 출석부에 날짜 및 요일표시, 입시제도 연구, 입시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무·학사관련 일에서 교수님들이 편히 교육과 연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며 등록금 인상이 어렵던 10여년간 기성회 등록금 협상위원으로 겨울 방학내내 봉사하며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의 복지에 늘 신경을 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기성회비를 25.7%인상하여 학교의 재정 수입확대 기여와 교수님들이 연간 2회 수령하는 ‘교재개발연구비’를 설계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일도 몇 번 교수님들과 힘을 모아 이뤄냈습니다. 무슨 일을 맡든 학생과 교수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며 그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는 교수회장에 임후보하면서 다시금 이러한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현재 대학은 여러모로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성과급연봉제의 실시, 학생수의 급감, 구조조정,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편 추진 등 어느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수님들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일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현재 젊은 교수들이 당면해야 할 큰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서도 안되고 강건너 보듯이 해서도 안되는 일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그 답은 교수님들이 잘 알



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나서야 합니다. 교수회를 중심으로 하여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일에 교수회의 역할과 방향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성회제도는 여러곳으로부터 도전 받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성회계가 폐지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에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미의 관심인 공무원연금 개편추진에 대해서도 교수회는 관심을 갖고 관련단체와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총장선출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총장이 선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교무 및 학사분야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데 앞장서 교육과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성과급 연봉제에 대해서는 ‘전국국립대학교교수협연합회’ 즉 국교련과 연합하여 이 제도의 개선에 힘을 모아 나가며 교수 업적평가도 학내에서의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대학본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끊임없이 다가올 대학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교수님들이 안심하고 일 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는 교수회가 되며 대학 본부의 업무중 불합리하거나 온당치 않은

<주요약력>

- △전산통계학과 교수
- △제주대 수학교육 학사 △연세대 이학 석사 △연세대 이학 박사
- △2011.3~2013.2 제주대 자연과학대학 학장
- △2007.8~2010.8 제주대 정책연구단장
- △2004.11~2005.5 교육인적자원부 대청정보화이러닝분과위원
- △2003.3~2005.5 제주대 전산정보원장

일들에 대해서는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제도수정토록 요구하며 교수들의 권익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찾아 개선하겠습니다. 안주보다는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학에 정책제안을 하고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대학에는 교수들에 대한 퇴직 대비 훈련프로그램이 부재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금융관리, 예능 등 퇴직 후 필요한 지식과 취미활동을 위한 기본을 갖추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교수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재능기부센터’ 운영으로 현직과 퇴직교수들이 갖고 있는 고급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수님들은 대학발전의 한 축입니다. 늘 교수들의 생각과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대학생활에서의 고민들을 청취하며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공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이 대학의 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교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사심 없이 일을 해나가 믿을 수 있는 교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안 제시와 비판을 겸하여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고 싶은 대학, 보내고 싶은 대학으로 변모하도록 노력하는 교수회, 교수님들이 존경받는 대학이 되는데 일조하는 교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교수회는 대학본부와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견제를 통해 대학발전이라는 하모니를 이뤄가는데 주역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600여명에 이르는 제주도내 최고 지성인들이 힘을 모으면 어떤 일든 옳은 일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같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기호 2번 이창준 체육학부 교수

“열정을 다해 교수 권익과 복지 향상 보장”

평소 존경하는 선배 교수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교수 여러분, 후배 교수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교관을 시작으로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제외하고는 제주대학 시절 1977년 9월 1일부로 최초 발령을 받아 1년을 근무하였고 다시 1982년 종합대학교로 출범하는 해에 전임강사로 발령받아 조교수-부교수-교수를 거쳐 40년간을 교육자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40여년을 근무하면서 체육과학 연구소장, 체육학부장,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고 교외활동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전국 시·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협의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상임이사, 사무처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교총 대학교수회 회장, 한국체육학회 부회장, 한국대학 육상경기연맹 부회장, 대한민국 ROTC 제주특별자치도 지교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륜을 바탕으로 제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수님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편안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7대 교수회장후보에 출마한 체육학부 이창준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교수회장 임후자로서 저 나름대로의 작은일 하나하나를 추진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 발전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명품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수님들의 강의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철화에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수님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약력>

- △체육학부 교수
- △경희대 체육 학사 △경희대 교육학 석사 △부산대 이학 박사
- △2012.2~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학교수회 회장
- △2010.7~2014.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부회장
- △2009.2~2012.1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국 시·도 회장협의회 회장
- △2005.3~2007.2 제주대 자연과학대학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부회장

교수회장 선출 공고

● 임후보자 확정 공고

임후보자 기호추첨 결과

△기호 1번 : 김철수 임후보자

△기호 2번 : 이창준 임후보자

● 선거일시 : 9월 30일 (화) 10:00~18:00

△소견발표 : 9:30~(각 임후보자 10분 이내)

△1차 투표 : 소견발표 종료 직후~14:00까지

△결선투표 : 16:00~18:00까지

● 임후보자 간담회 결과

△임후보자는 제7대 제주대학교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약서 내용에 따라,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합의함.

△당일 공개 소견발표회만 개최(1인당 10분 이내) 하기로 합의하고, 선거참관인은 선관위에서 담당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7대 제주대학교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서약함.

● 투표장 시설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기표대 4개, 투표함 1개

△의학전문대학원 소회의실 기표대 2개, 투표함 1개

△사라캠퍼스 회의실 기표대 2개, 투표함 1개

로컬뉴스

제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쾌거

201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서 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행정부가 실시하고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되는 쾌거를 거뒀다.

평가결과, 평가대상 9개 분야 중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중점과제 5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2008년 안전행정부 중심의 정부통합 합동평가가 실시된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일반행정, 문화관광, 중점과제 분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가 작년 ‘나’ 등급에서 올해 ‘가’ 등급으로 상승했다. 또한 지역경제분야가 작년 ‘나’ 등급에서 올해 ‘가’ 등급 평가를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합동평가는 28개 중앙부처의 9개 분야 36개 시책(270개 세부지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년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온라인평가, 합동평가단 현지 검증, 시도 교차검증(열람, 이의신청 등), 고액제검도 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재정 인센티브는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 서민생활안정, 복지서비스 등

201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 부산 제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가등급	2	3	5	2	2	4	1	3				
나등급	4	4	2	2	4	5	4	4				
다등급	3	2	2	5	3	0	4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가등급	4	5	3	2	1	1	3	4				
나등급	3	3	2	5	4	2	2	4				
다등급	2	1	4	2	4	6	4	1				
(자료: 안전행정부)												

도정 역점 분야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도정 성과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번 결과는 도를 비롯한 행정시와 읍·면·동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역량을 결집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우수부서와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 근무평정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정학 정책기획관은 “금년도 평가결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단점 보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이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제주지역 후보자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가운데 꿈과 끼, 상상력과 창의력, 인성과 공동체 의식 등을 두루 갖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2014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제주지역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고등학교(국내) 또는 대학(국내·외)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9월 26일 까지이며 접수처는 고등학생의 경우 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로, 대학생은 도평생교육과를 방문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지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지역 우수인재 후보자(고등학생 6명/대학생 3명)를 선발·추천하면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 및 심사를 거쳐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대상자를 선발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에서 246명(고등학생 147명/대학생 99명)을 추천받아 최종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대상자로 선발하여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후보자(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를 추천했고, 이중 5명(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이 인재상 수상대상자로 선발해 대통령상, 상금 300만원 등을 수여받았다.

제6차 세계지질공원 총회

제주도 재인증 성공 쾌거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2일 캐나다에서 열린 제6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재인증에 성공해, 유네스코 3관왕의 위업을 이어나가게 됐다.

세계지질공원은 인증 후 4년간 지위가 주어지며, 이후에는 재평가를 받는다. 제주도는 이번 캐나다 스톤헤머에서 열린 제6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유네스코 3관왕의 위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지질공원으로 11개소가 신규 추가됐으며, 제주도를 비롯한 23개소가 재인증 그린카드를 받아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총회이후 세계지질공원은 총 32개국, 111개소로 늘어났다.

2010년 10월 1일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우리나라에서 지질공원과 지질관광을 처음으로 도입한 시발점이 돼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재평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재인증을 앞두고 오랜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했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탐방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명예도민 우정의 날

제주 발전을 위해 모인다

제주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명예도민들이 제주의 현안을 공유하고 제주발전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원희룡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 명예도민 200여명을 초청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통해 제주 출신은 아니지만 제주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명예도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제주발전에 대해 명예도민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가 현재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해 명예도민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참석 명예도민 전원에게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제주 발전에 대한 의견 발원 기회 제공 및 청취로 도정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구성지 도의회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이석문 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과 명예도민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의 외연을 확대하고 이를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차원에서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수를 존경할 수 있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교수간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수회에서 목목히 교육과 연구에 헌정한 활동을 하는 교수님을 선정하여 ‘참 스승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역대 교수회장들의 계속되는 사업들을 검토하여 승계는 물론 일부분을 보완하여 발전된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제7대 교수회장으로 선택하여 주신다면 대학의 발전은 물론 교수님들의 교관응호는 물론 교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맨발로 열정을 다하여 힘차게 뛰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강수빈 기자

교수시론



김일방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수

며칠 전 제주의 모 일간지에 실린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항상 좋을까?'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읽고 바로잡을 만한 사항이 있어 펜을 든다. 이 기고문의 핵심은 자연이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인위적 조치에 의한 자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방치일 수 있으므로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기고문을 읽은 독자들 가운데는 그렇잖아도 환경보호의식이 그리 깊지 않은 것이 우리의 상황인데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더욱더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주장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보전(conservation)과 보존(preservation)의 차이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환경보호의식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의 상황에서라면 이런 기사라 하더라도 앞뒤 맥락을 가리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리만치 아직까지는 환경보호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펼 때는 좀 더 신중함이 요구된 보인다.

먼저 개념상의 정리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보전(conservation)'과 '보존(preservation)'이라는 개념 간의 구분이다. 보전이란 인간이 자연환경으로부터 장기간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 등의 무제한적 수탈로부터 자연을 지키는 것이다. 반면에 보존이란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지는 큰 목적에선 의견이 일치할 수 있으나 그 동기는 분명히 다르다. 보전 쪽은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익을 중시하여 지키자는 입장이지만 보존 쪽은 자연을 어디까지나 미개발 상태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다. 보전 쪽은 자연환경을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는 수단으로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반면 보존 쪽은 자연이야말로 명상의 원천이자 현대 생활의 판타지로, 미적 체험의 장소로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간단히 정리하면 보전이란 '인간의 이용을 전제로 자연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보존이란 '현상 동결'을 의미한다.

자연환경은 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보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정 국

“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전과 보존을 구분하며
맥락에 맞는 선택을 해야
자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방지할 수 있다

”
가 특정 지역에서의 보전관리정책을 보고 그것이 마치 자연을 대하는 일반화된 정책인 양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은 방치다'와 같은 표현은 그리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보전과 보존의 이면에는 자연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전의 이면에는 자연을 인간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파악하는 공리주의적 관점 또는 인간중심적 관점이 있는 반면, 보존의 이면에는 자연에는 인간과 무관한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연중심적 관점이 있다.

가령 한라산의 노루 대책에 이러한 관점을 적용해보자. 노루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어떠한 인위적 개입에도 반대하며 자연 그대로 놓아두자는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전형적인 인간중심적 관점이라면 후자는 자연중심적 관점에 해당한다. 어느 입장이 자연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일까? 분명한 것은 과도한 인간중심적 관점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파괴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인간이 목적 그 자체이든 경우에 따라선 자연환경 역시 그러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때 환경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부추기는 지나친 인간중심주의적 표현은 더욱 신중하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동문칼럼



임민철
경제학과 87학번
제주도로교통공단 교육홍보부 과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배려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안전운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교통안전 지식과 운전기술, 교통안전 시설물, 경찰의 단속 등을 들 수가 있으나,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작은 배려와 양보라 할 수 있다. 운전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 혼자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나 교차로 주변에 불법 주, 정차 하는 행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고도 보행에 주지 않는 운전자, 특히 교통약자인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분들에게도 보행해주지 않는 운전자와 야간에 자신의 가시거리와 시야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일반 전조등보다 몇 배나 밝은 할로겐, HID램프 등으로 전조등을 교체하는 운전자로 인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나 혼자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 때에 자신의 이득 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서 운전행동을 했을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이 교통선진국에 비해 차대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운전자들이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행자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도로에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어린

이 등 교통약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속이나 신호를 위반하는 난폭운전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들이 존재하는 한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교통약자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약자와 마주쳤을 때뿐만 아니라 이들이 항상 안심하고

“
보행자를 우선으로 배려하고
진정한 안전운전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은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보행자를 철저히 보호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도로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거나 지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경음기를 함부로 울려대며 상대방에게 조소할 것을 강요하는 행동은 청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에겐

매우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어르신들은 시력, 청력이 떨어지고 특히, 근력이 약하여 위험을 보고도 즉각적인 회피행동을 하지 못한다. 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보행 중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어린이는 다가오는 자동차의 거리, 속도 등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고 키가 작기 때문에 자동차 등에 가려진 곳에서 접근하는 차를 보지 못하고 행동하는 예가 많다. 또 자신의 놀이나 관심거리에 집중하면 주변교통상황을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알아서 행동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특히 어린이는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성장장애를 입게 되면 어린이의 인생은 물론 한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운전자도 자동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우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모든 보행자를 내 가족처럼 보호해 주어야 하고 진정한 안전운전의 길이 무엇인지 운전자들은 한번쯤 고민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영화 ‘몽상가들’ 파리 68세대의 자화상

독자기고



왕가온
의류학과 1

프랑스에 대한 관심은 여름방학동안 접심했던 제3외국어를 프랑스어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만큼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은 물론 인물과 사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철학적인 정신세계가 구축돼 있는 문화인만큼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지루할 수도 있는 문화이다. 하지만 그만큼 코믹적이고 매력적이며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프랑스 문화를 알아가며 리뷰를 받아보는 프랑스문화 홈페이지에서 영화 ‘몽상가들’을 추천했다.

몽상가들은 2003년도에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이다. 줄거리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영화는 1968년 파리를 배경으로 자유를 외치는 젊은이 매튜(마이클 피트 분) 그리고 남매 테오(루이스 가렐 분)와 이사벨(에바 그린 분) 셋의 사랑과 열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영화광인 미국인 유학생 매튜는 시네마테크에서 쌍둥이 남매 이사벨과 테오를 만나 가까워진다. 두 남매는 매튜를 자신의 무리로 영입하며 우정을 키운다. 부모가 휴가를 떠난 이사벨과 테오의 집에서 한 달 간 지내게 된 매튜는 영화와 음악, 책, 혁명 등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사벨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 매튜는 이사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사벨을 테오와 떨어지려 하지 않고 매튜는 이사벨과 테오를 함께 만나게 된다. 매튜는 이사벨과 연인사이이다. 그러나 이사벨은 테오를 더 사랑한다. 매튜는 남매의 사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점차 둘의 유대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셋이 별거벗은

채로 누워 잠에 들어있을 때 부모님이 셋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언제나 결심해온 대로 이사벨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가스관을 틀고 자살을 결심한다. 하지만 창문을 뚫고 들어온 굉음에 잠에서 깨고 셋은 시위현장으로 달려 나가 시위를 한다. 매튜는 시위의 방법이 폭력적이라며 테오를 말리지만 테오는 매튜를 거부한다. 이사벨은 테오를 따른다. 그리고 매튜는 시위를 하는 두 남매를 뒤에서 쳐다보며 갈등을 하다 그 둘을 뒤로하고 떠나가게 된다.

이 영화는 인물들의 말 한마디에도 의미가 가득하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인 영화였다. 셋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색깔과 이상이 뚜렷하다. 셋은 닳았으며 전혀 달랐고 서로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도 어느새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여가며 변해간다.

세 인물의 심리변화를 보는 것은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다. 나 역시 아직은 철학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어 전문가들이 쓴 리뷰들을 다시 찾아보곤 한다. 그래도 이 영화를 보며 몽롱하고 행복했던 기분을 지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프랑스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우리 학교의 교양수업 중 고영림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프랑스 문화의 이해 또는 초급프랑스어 등 프랑스에 관련된 수업들을 경청했으면 한다. 열정적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이고 많은 강의가 개설돼있기 때문에 제주대 학생 중 3분의 1명은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프랑스 관련 강의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먹고 도전을 했으면 한다.

독자기고



김은혜
언론홍보학과 1

평소처럼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은 물론 트위터에 문준영이라는 이름이 도배돼 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게시글을 눌렀으나 글의 본론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 글의 내용은 전속계약 문제와 소속사에서 공정하지 않은 수익배분, 방송에서 다채 활동에 지장이 생겼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방송사PD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이렇듯 소속가수들에게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준영 사건은 평소 대중들이 알지 못했던 연예계와 방송사의 부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2009년 동방신기 사태가 생각났다. 그때 당시에도 노예계약이 문제였다. 결국 멤버 3명이 소속사를 나와 JYJ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JYJ의 전 소속사의 논지를 본 방송사들은 그들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다. 당시에는 끝나지 않는 이슈거리였으나 대중의 관심이 식자 보란듯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뻔 한 것이다.

비슷한 문제점들이 제시된 사건이었지만 그 전개과정과 속도는 차이가 컸다. 동방신기 사태는 그 해결과정이 길고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반면 문준영 사건은 겨우 하루만에 소속사인 스타제국 측과 ‘대화를 했다’는 사과문과 사건이 해결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중들의 관심은 물론 대중들이 소식을 접하는 속도부터가 달라진 것이다. 사건이 터지고 기사화가 된 이후에 알게되던 과거와는 달리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돌 지망생들에게 갑의 위치인 기획사가 지망생들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 그저 하나의 소유,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동방신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동방신기, 문준영 등 연예계의 울지 못한 모습이 나올 때마다 대중들은 우르르 달려들고 분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쉽게 잊는다. 그리고 작게 여러 번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중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다. SNS의 등장 이후 연예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반응은 더욱 더 즉각적이고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준영의 트윗이 알려지게 된 과정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문준영 사건은 심지어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도 전에 SNS의 일반 사용자화 화면을 캡처해 ‘이게 무슨 일이나’며 화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 하나의 글을 본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을 하는 행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렸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기사의 하단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으로 시작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네티즌이란 모두 SNS 사용자로 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점차 SNS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좋아요’나 리트윗이 무조건적인 동의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가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다. 이것이 한 연예인의 SNS의 소식이 인터넷 신문을 달구는 이유일 것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허와 실

둘하르방



김보라 기자

게임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어 3번째이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소속 45개국 선수와 임원 1만 3855명이 참가한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시작부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미덕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식당과 다양한 시설을 갖춘 숙소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외식문화인 ‘치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세계의 주목을 끌 것이라는 예상들이었다.

그러나 아시안 게임은 시작부터 문제에 당면했다. 재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유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이번 우려와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 아시안 게임 개막식부터 성공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개막식에 가는 기대는 매우 컸다. 19일 보여준 개막식은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개막식이 아니라 한류 콘서트를 보는 착각마저 들게했다.

남성그룹 EXO, JYJ, 배우 장동건, 김수현 등 과도한 연예인들의 출연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영애의 성화 점화는 점입가경이었다. 아시안게임은 스포츠 대회이지 한류대회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마땅한 스포츠 선수가 없냐? 라는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한국에는 아시안게임의 주인공이 될 스포츠 선수가 없는가? 아니다. 축구스타 박지성이나 피겨의 여왕 김연아는 한국이 낳은 인재다. 선수들이 아닌 유명 배우의 성화 점화는 자국민들도 의아하게 했다. 국가가 스포츠 정신에 까지 K-Pop의 유명세를 끼워 팔기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반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 외신들도 동일했다.

대만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연합보’는 “성대한 체육행사는 제법 대단한 한류 콘서트가 됐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일본 뉴스통신사 ‘지지통신사’도 “성대한 체육행사가 커다란 영화제와 비슷하게 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스포츠를 문화 콘텐츠

츠 사업의 작은 부분으로 밖에 여기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사전준비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상당히 여러 번 유치한 적이 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이 그것이다. 그 당시의 상황과 결과,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전부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의 시작이 그리 평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개막식이 끝나고 아시안게임이 도입으로 접어든 시점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14일 문학경기장 축구 전용구장에서 아시안게임 한국 대 말레이시아 축구 예선전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람객들이 미리 온라인에서 구매한 입장권을 종이 입장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기나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관객들중 일부는 축구경기가 전반전에 접어들 때까지 입장하지 못했다. 점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아시안게임을 만들겠다는 국가의 호언장담과는 다른 결과물이다.

그 뒷편에는 문학경기장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문제 떠남기기식의 대응 방식이 있었다. 그만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외형을 중시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대중의 편의와 사용자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주먹구구식의 이러한 해결은 많은 불만을 낳았고, 여론은 진행 능력의 부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만들었다.

수많은 해외 관람객들이 모이는 대회에서 이러한 입장관리 부실 등의 운영에 관한 실수는 한국이 IT강국이라는 면모를 보여주는 못할 망정 국제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비단 인천 아시안게임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아시안게임은 단순히 인천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축제이고, 또 인천 발전을 뛰어 넘어서 대한민국 제도의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비단 인천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미지이다. 이러한 시선이 하나하나 축적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비단만이 아닌것은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고대하던 평창올림픽을 2018년에 개최한다. 그토록 기대하고 수많은 금액을 투자할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행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폭죽이 터지는 양이 많다고 해서 하늘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만큼 빈 공간의 하늘이 있어야 밝은 폭죽이 아름다워 보이듯이, 다음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더욱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ac.kr

제주 독립출판물 현장을 가다



일상 속 심포, ‘소심한 책방’

신선하고 솔직한 시선의
독립 출판물 선보여



제주 동쪽 끝, 한적한 시골 마을 종달리에 신기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열핏 보면 가정집과 다를 것 없는 이 공간은 ‘소심한 책방’이라는 간판을 소심하게 걸고 있는 책방이다. 집에서 약 300m를 걸어 책방으로 출근하는 제주 여자 현미라(32세)씨와 집에서 약 450km를 비행기로 출근하는 서울 여자 장인에(35세)씨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공간이다. 웬만한 힘으로는 잘 열리지 않는 미닫이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잊고 있었던 서점의 냄새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터넷 서점이 거대해지고 동네 서점들이 하나둘 사라져 잊고 있었던 추억의 냄새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파가 먼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방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이곳이 바로 책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집을 개조하여 만든 이 곳은 공간도 작고,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도 적은 모습이다.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은 모두 주인장인 현미라씨와 장인애씨의 편애로 이뤄졌다. 농담 삼아 팔리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면 자신들이 갖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에 드는 책방이기 전에 두 주인장의 마음에 드는 책방이 되길 바랐던 것이다.

“저희는 이 책방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어요. 책에 둘러싸이는 기분, 책을 만지고 활자를 훑어보는 행위가 주는 위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걸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책방에 들려주시는 분들도 저희 책방에서 책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책방이 아닌 위로의 공간이 되길 소망하는 이 곳은 단순한 책방이기 전에 하나의 공간으로써 의미가 큰 곳이다.

제주에 살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현미라씨는 2년 전 제주로 이주 후 읽을 책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면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늘 아쉬워했다. 서점에서 새 책의 냄새를 맡으며 책을 고르고 읽던 것이 큰 위로였던 그들에게는 큰 아쉬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책 냄새를 맡으며 활자를 훑어볼 수 있는 책방을 만들었다.

서점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고, 주변의 남아있는 서점은 베스트셀러나 각종 수험서

및 자격증 책들이 서점을 채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 책의 냄새를 맡으며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며 책을 휘휘 넘겨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서점뿐만 아니라 출판 산업이 불경기라지만 이 책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보다 처음 보는 생소한 책들이 많다. 향기 나는 잡지인 ‘SCENT’, 출판사 문화과지성사를 모방한 ‘문화과지성사’의 시집, 소심한 사람이 평소에도 느꼈던 소심한 생각들에 대한 에세이 ‘소심한 사람’ 등 다소 특이한 책들이 많다.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서 출판하는 독립출판물들을 이 서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심한 책방의 책장에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생소하고 개성있는 독립출판물들이 채워져 있다.

“저희도 한때는 출판물을 직접 만들었던 분들처럼 저희의 이야기와 생각을 직접 만들어 보며 즐겨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일만큼 괜찮았던 작업물이 아니라서 저희끼리 소장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일이 상당히 흥미롭다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그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독립출판물 중에는 정말 내용이 좋은 작품도 많고, 소재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어서 매력적이에요. 이런 매력적인 독립출판물을 책방을 찾으시는 분들께 소개도 하고, 독립출판물을 작업하시는 작가분들께도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독립출판물도 함께 하게 됐어요.”

작고 외진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책들로 책방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들로 그들이 가장 먼저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서점이 여럿 있으나 제주도내에서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제주도의 ‘소심한 책방’은 신기하며 소중한 공간이다.

“독립출판물은 소재의 다양함과, 때때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예술과 문학을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에요.” 한번 독립출판물은 접하게 되면 그 매력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독립출판물은 대부분 개인 혹은 소규모집단들이 출판하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며 자유롭게



소심한 책방의 책장에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생소하고 개성있는 독립출판물들이 채워져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고 솔직하다. 일상을 그들은 사진으로, 그림으로 혹은 글로 표현해 출판물 하기도 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생각을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 모두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출판사의 정제된 교정이나 편집 없이 조금은 투박하기도 한 독립출판물은 그만의 매력에 있는 작품들이다.

“저희가 애정으로 구성해 놓은 책들을 보면서 읽고 싶고, 가지고 싶은 책들만 있다가 감탄해 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사실 저희만의 기준으로 골라둔 책들이라 어쩌면 선정의 기준이 너무 이기적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취향을 알아봐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에 요즘 안도를 하고 있거든요. 베스트셀러도, 시류에 맞는 신간도 크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과 취향을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두 주인장의 편애의 책들로 이뤄진 책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심한 책방’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다. 그 누군가보다 우선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됐다. 먼 길을 돌아 굳이 책방에 들려 책을 사는 손님, 여행 중 들려 책을 사는 손님 그리고 신기한 공간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들리는 동네 할머니들과 꼬마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제주에서 가장 작고, 가장 오래된 책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느린 사람이라고 칭했다. 시류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SNS 등으로 소통도 잘 해내지 못해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느린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런 민감함이 없어도 책방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리란 굳은 믿음이 있었다. 어쩌면 이러한 ‘느림’은 책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느림을 유지하고 이런 느림이 책방의 수명을 늘리는 일이 되길 바랐다. ‘소심한 책방’ 안에서 만큼은 사람들이 이러한 느림 속에서 잠시나마 심표를 찍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책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인터넷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가보다 싼 값으로 책을 가질 수 있지만 직접 만져지는 책과 그 안에 든 문장들을 잠시 훑어 내려가는 일은 바쁘고 다급한 일상에 심표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심표가 있는 공간이 우리가 지나는 골목과 길가에 작게나마 자리하고 있다면 빠른 심장 박동이 조금은 느려지지 않을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공간들이 늘어나기를 함께 희망하고 싶어요.”

많은 것이 빠르게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요즘, 그들은 작고 외진 공간에서 작은 공간을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긴 문장 안에서 심표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긴 인생에서도 심표는 필요하다. 잠시 쉬어 호흡을 길게 하고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점인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잠시 심표를 찍고 가빠른 숨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작은 동네 종달리에 우리가 심표를 잠시 찍을 수 있는 작은 책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유주연 기자

제주 특색체험 여행

제주만의 문화와 자연 즐기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박물관과 테마파크는 다른 관광지와의 차이가 없다. 여기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주만의 특별한 곳을 소개하려고 한다.

예술인들이 살아가는 특색있는 마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1999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색화 개발 아이디어 시책으로 2001년부터 환경면 저지리에 형성된 북방문화예술공간이다.

이곳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조성됐다. 또한 제주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문화예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사진가, 디자이너, 화가, 음식연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48명에게 분양이 완료됐다.

마을 내부는 제주의 돌담과 송이도로 포장 등 제주의 지형과 환경적인 특성을 그대로 살렸다. 집들은 한쪽의 그림 같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한옥처럼 지어진 건물, 흙으로 지은 것처럼 보이는 건물 등 건물의 형태도 다양하다.

마을 중심부에는 제주현대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분관과 분관으로 이뤄져 각각 김흥수 화백과 박광진 화백의 작품이 전시됐다. 또한 다양한 기획전도 열리는데 9월 29일까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작가초대전 ‘계정 민이식’의 전시가 진행된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둘러볼 수 있는 것도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의 장점이다. 시골벽적 관광객들에게 치이기는 보다는 조용히 산책하며 사색을 할 수 있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다양한 작품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가장 제주스러운 꽃자왈과의 만남, 환상숲

‘꽃 드레강 낭해오라, 자왈 드레는 가지말라(숲에 가서 나무 해 오나라, 가지

덤불 있는 곳엔 가지말거라).’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 꽃자왈의 어원을 알 수 있다. 숲을 뜻하는 ‘꽃’과 가지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져 ‘꽃자왈’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꽃자왈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천연 원시림이다. 용암이 남긴 신비한 지형위에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꽃자왈 지대는 크게 한경-안덕 꽃자왈지대, 애월 꽃자왈지대, 조천-함덕 꽃자왈지대, 구좌-성산 꽃자왈지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환상숲은 한경-안덕 꽃자왈지대에 있다. 이곳에서는 꽃자왈의 형성과정과 공존과 경쟁의 생태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상숲의 길이는 총 550m로 오시록한 길, 갈등의 길, 애음터, 정글지대, 아바타 길 총 다섯 구간의 관람로로 이뤄져 있다. 가장 먼저 입구를 지나면 꽃자왈의 숨구멍, 숨골을 만날 수 있다. 숨골은 지표 바로 밑이 현무암으로 크고 작은 굴들이 형성돼 있다. 꽃자왈 지역에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이 숨골을 통해 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된다.

서로 다른 나무의 줄기가 어이저 한 나무로 자라는 연리목도 볼 수 있다. 꽃자왈에서는 식물들이 단단한 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그 덕분에 단단한 근육질의 나무 결뿌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꽃자왈의 대한 설명을 들으며 환상숲을 걷다보면 지질관측소가 나온다. 지질관측소에서는 우리가 오면서 들었던 꽃자왈의 땅 속 모습과 용암이 흘러나온 흔적을 관찰 할 수 있다. 꽃자왈은 그 주변의 생태계를 위해 나무줄기가 자라는 것을 잘라내지 않는다. 자연은 있는 대로 보존될 때 그 순리대로 돌아간다. 환상숲은 이처럼 있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대로의 꽃자왈을 품고 있다. 환상숲은 제주자연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환상숲을 걷다 보면 누구나 제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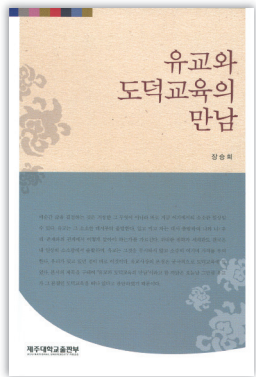
김보라 기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중심에 위치한 제주현대미술관(왼쪽)과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환상숲의 모습(오른쪽).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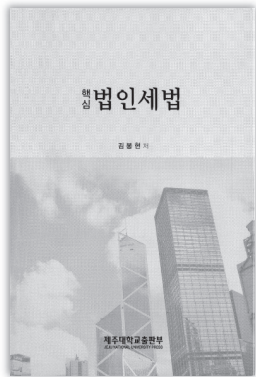


유교와 도덕교육의 만남

장승희 지음 | 477페이지 | 23,000원 |

매순간 삶을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소소한 일상일 수 있다. 입고 먹고 자는 데서 출발하여 나와 너·우리·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유교와 도덕교육의 만남』은 유교사상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도덕교육에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날 도덕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다. 유교의 현재성을 찾고 그 도덕교육적 의미를 탐색한다. 유교의 도덕교육적 위상을 점검하고 다른 영역들과의 통섭을 추구한 연구들을 정리했다.



핵심 법인세법

김봉현 저 | 228페이지 | 15,000원 |

법인이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실무에 대해 필수 세부처리 사항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인의 세부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핵심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었고, 법인세법의 개론적 내용을 학습하고 예제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인세실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강의

이수정 증보판 | 김현수 저 | 517페이지 | 20,000원 |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사과 재판 및 형 집행을 통하여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서의 일정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바 이와 같은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강의』는 판례의 동향과 학설의 흐름, 그리고 관련 개정 법률의 내용을 보충한 형사소송법 교재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쉬우면서도 능률적이고, 특히 중요 판례의 요지를 가급적 많이 인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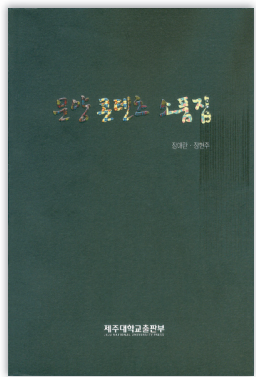


의·생명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김형미·손영수 공저 | 개정·증보판 | 387페이지 | 20,000원 |

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복무하는 학문의 영역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와 의·생명과학의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의학내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생명 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환자·의사·사회Ⅲ 과목의 강의 주제를 따라 재구성하였다. 의료윤리의 원리부터 설명의무의 범위, 인간생체실험, 의료법리 사례평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문양 콘텐츠 소품집

장애란·장현주 지음 | 98페이지 | 12,000원 |

최근 전통문화원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 내용이 독특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채 고유한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신화야말로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문양 콘텐츠 소품집』은 제주신화, 제주이미지, 문자도 문화원형을 응용한 문양 콘텐츠 소품집이다.